2007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1교시 언어 영역 •

정 답

1	①	2	④	3	④	4	④	5	⑤
6	⑤	7	④	8	⑤	9	⑤	10	③
11	③	12	②	13	②	14	⑤	15	③
16	①	17	②	18	④	19	②	20	③
21	④	22	①	23	①	24	③	25	②
26	⑤	27	⑤	28	②	29	②	30	①
31	②	32	②	33	④	34	③	35	②
36	①	37	④	38	⑤	39	⑤	40	④
41	①	42	⑤	43	①	44	⑤	45	③
46	③	47	②	48	③	49	④	50	①

해 설

1. 이제 여러분에게 학생의 발표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얼마나 가지시나요? 이런저런 과제물에 수행 평가에 시험공부까지……. 정신 없이 지내느라 자신을 돌아볼 틈도 없지 않나요? 저도 그렇습니다. 바쁘게만 살다 보니 저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책에서 읽은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가다 이따금씩 말에서 내려 자기가 달려온 쪽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선 다시 말을 타고 달린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말이 지쳐서 쉬게 하려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쉬려는 것일까요? 그것 역시 아니랍니다. 인디언들이 가끔씩 말에서 내려 자기가 달려온 쪽을 바라보는 것은 혹시 너무 빨리 달려서 자기의 영혼이 미처 뒤쫓아 오지 못했을까 봐 영혼이 따라올 때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탄 말이 너무 빠르게 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 모두 앞만 보고 바쁘게 달리느라 영혼을 돌볼 틈은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가끔씩은 말에서 내려 뒤를 돌아보는 여유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2. 이번에는 대화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허엽 : 듣건대 이 공(公)이, 지금은 향약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때가 아니라고 주상께 주청했다고 하는데, 향약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왜 시기상조란 말이오?

이이 : 의복과 음식이 넉넉한 뒤에라야 예의를 아는 법입니다. 근자에 이르러 백성들의 살림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졌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억지로 예를 행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먼저 백성들을 잘 살게 한 연후에 백성들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허엽 :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어렵다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소. 허나 고금의 역사로 보건대, 풍속이 어지럽고 인륜 도덕이 땅에 떨어진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소. 그러니 당장은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어렵더라도,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는 향약을 시행하여 백성들을 교화해야 하지 않겠소?

이이 : 예로부터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도 예의범절을 잘 지키는 아름다운 풍속을 이룬 적은 없었습니다. 도덕 교화라는 것은 쌀밥과 고기반찬 같은 것입니다. 너무 굶주려서 죽도 소화시킬 수 없는 형편이라면, 제 아무리 맛있는 쌀밥과 고기반찬인들 먹을 수 있겠습니까?

허엽 : 허허, 백성들이 살림살이가 아무리 풍족한들, 예의와 도덕을 모른다면 금수와 다를 바가 있겠소? 오히려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운 이때에 백성들을 교화하여 미풍양속을 진작시켜야 하오. 그러면 백성들의 살림살이는 저절로 넉넉해질 것이오.

이이 : 비록 부자지간이라도, 아들의 굶주림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날마다 매질이나 하면서 학문을 권한다면 반드시 의가 갈리고야 말 것입니다. 하물며 굶주린 백성들에게 있어서야 오죽하겠습니까?

3. 이번에는 강연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윤리적 소비'에 대해 들어 보신 적이 있나요? '소비'라는 말에 '윤리'라는 무거운 단어가 붙어 있으니 어색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윤리적 소비란 인간과 동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생산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말하는데, 저개발 국가의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노동 착취를 막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공정 무역 개념을 근간으로 1990년대 말에 확립된 이념입니다.

공정 무역은 생산국의 농민이나 노동자의 노동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루어지는 무역 활동을 가리키는데, 윤리적 소비에는 이러한 공정 무역 제품을 구입하는 일 이외에도 여행지의 자연과 문화를 보존하고 그 나라에 이익이 되도록 하자는 책임 여행이라든가,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는 일 등이 포함됩니다.

현대 사회는 사람들의 소비 욕구를 지나치게 자극하여 과소비를 조장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광고나 판촉 활동에 현혹되어 단지 싸다는 이유로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구매했다가 제대로 쓰지도 않고 버리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버려진 물건들은 결국 쓰레기가 되어 환경을 훼손하겠지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소비나 과소비를 자제하는 것도 윤리적 소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짓 하나, 발걸음 하나가 주변의 많은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 돈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하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인간과 동물, 환경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소비자가 돼 보는 건 어떨까요?

【4－5】 이번에는 인터뷰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물음에 답하세요.

여자 : 바쁘신 가운데도 새 책을 내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이번에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해 분석한 책을 내셨는데요, 이전의 책들과는 성격이 상당히 다른 것 같네요.

남자 : 네, 그 동안에는 주로 개별적인 차원에서 전통문화의 요소들을 다뤘는데요, 이번에는 그간의 다양한 연구 내용들을 하나로 꿰어서 일관된 논리로 설명했습니다.

여자 : 이번 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면 우리 문화의 각 영역을 망라해서 다루고 있다는 점인 것 같은데요, 과연 광범위하게 여러 분야를 섭렵한다는 게 학문이 전문화된 현대 사회에서 가능한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연구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남자 : 예, 사실 광범위한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지식이 짧아서 무척 힘들긴 하더군요. 하지만, 다소 거칠고 범박한 느낌을 주더라도 우리 문화의 전반을 아우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자 : 이번 책에서 사용한 핵심적인 개념이 '프랙탈'이라는 것인데요, 이게 좀 생소하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죠.

남자 : 네, 프랙탈은 1975년 수학자 만델브로트가 발견한, 새로운 기하학의 원리를 통칭하는 말인데요, 다도해의 해안선이나 계곡, 소나무, 난류, 구름 등과 같이 불규칙해 보이는 대상에 내재된 질서를 찾아내는 새로운 수학의 개념입니다.

여자 : 바로 그 프랙탈이라는 개념을 우리 문화의 분석에 적용하셨지요. 그런데 책을 읽다 보니 그렇게 하신 데에는, 이번 책을 통해 그간에 있었던 어떤 편견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남자 : 네,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의 전통문화를 재해석하는 방법으로 프랙탈 기하학을 도입하게 된 것은, 규칙적이고 정형적인 것을 추구해 온 근대화 과정에서 배제되었던 우리 전통문화를 재평가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근대화 과정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질서에 집착해서 반듯한 것, 직선적인 것이 가치 있다는 생각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무질서해 보이는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해서는 무시하거나 낮게 평가하곤 했었지요. 하지만 프랙탈 기하학의 관점에서 보면 언뜻 보기에는 무질서해 보이는 우리의 전통문화에 어떤 질서가 내재해 있다는 점을 밝혀낼 수 있거든요.

여자 : 네, 오늘 설명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새 책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출제의도] 말하기의 성격을 파악한다.

발표하는 학생은 바쁘게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잠시 쉬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고 있지 여유 있는 삶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다.

2. [출제의도] 대화의 쟁점을 파악한다.

허엽은 백성 교화가 이루어지면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저절로 넉넉해질 것이라는 점을 들어 향약의 전국적 시행을 주장하는 데 반해, 이이는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해결된 연후에 백성을 교화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향약의 전국적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대화의 쟁점은 민생과 교화의 우선 순위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출제의도] 대본에서 주어진 정보를 다른 상황에 적용한다.

'윤리적 소비'란 인간, 동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공정무역 제품을 사는 것, 책임 여행을 하는 것,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생산된 상품을 사는 것 등이 포함된다. 입소문으로 알려진 실속 있는 회사의 제품을 사겠다는 것은 인간, 동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을 사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4. [출제의도] 인터뷰의 특징을 파악한다.

이 인터뷰는 저자에게서 책에 대한 설명을 듣는 대화로, 저자가 어떤 쟁점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는 부분이 없다. 저자가 책의 성격, 연구 과정의 어려움, 핵심적인 개념, 집필 의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5. [출제의도] 인터뷰의 핵심 내용을 확인한다.

이 인터뷰에서 밝혀진 주요 내용은, 새 책이 '그간의 다양한 연구 내용들을 하나로 꿰어서 일관된 논리로 설명'한 것이고 '우리 문화의 전반을 아우르는 연구'라는 사실이며,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해서 프랙탈 기하학의 관점에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재해석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런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제목은 ⑤이다.

6. [출제의도] 주어진 소재를 바탕으로 주제를 연상한다.

지렁이가 생명 활동을 한 결과 토양이 비옥하게 된다는 것이지, 토양을 비옥하게 하기 위해 지렁이가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7.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자료2>를 통해 약수와 지하수를 더 많이 개발해야

한다는 내용을 이끌어 내는 것은 '수돗물 정책과 관련한 글'이라는 글의 초점과 맞지 않는다. 또 <자료 2>에서 약수와 지하수를 더 많이 개발해야 한다는 내용을 이끌어 낼 근거도 없다.

8.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글을 쓴다.

정답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의 성공담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⑤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다.

9. [출제의도] 개요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처음 작성했던 개요인 (가)는 나노 기술의 유용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추가로 접한 자료인 (나)는 나노 물질이 인간과 동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가)와 (나)의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한 개요는 나노 기술이 유용성과 위험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그런데, ⑤는 나노 기술의 유용성 측면에서 초점을 두어 응용 분야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0. [출제의도] 자료를 바탕으로 종결어미 '-대, -데'의 의미와 용법을 탐구한다.

[A]의 '-대'는 어떤 사실을 주어진 것으로 치고 그 사실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놀라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는 뜻이 섞여 있다. '-데'는 과거 어느 때에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현재의 말하는 장면에 그대로 옮겨 와서 말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더라'와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데 쓰인다. [B]의 '-대'는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남이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 쓰이고, '-다고 해'가 줄어든 말이다. -데'는 화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나중에 보고하듯이 말할 때 쓰이는 말이다.

11. [출제의도] 고쳐 쓰기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은 앞 문장의 "정작 중요한 것은 '방이 많은 집'이 아니라 '편안한 잠'이다."라는 내용을 일반화한 표현으로 바꾸어 다시 반복한 것이므로,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조건이 되거나 앞의 내용을 전제로 새로운 주장을 할 때 쓰는 '그러면'이라는 접속어를 첨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2. [출제의도] 자료를 바탕으로 인접한 어휘의 의미와 용법을 탐구한다.

<보기>에서 보듯 '충고'는 '남의 결함이나 잘못'을 타이름 또는 그런 말을 뜻한다. 따라서 ②의 '아름답다'고 '충고'하는 것은 어색하다.

[오답풀이] '자문'은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음'의 뜻을 가진 말이므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다' 또는 '(전문가)에게 (-을/를) 자문하다'로 써야 용법상 맞는 표현이다.

【13 – 18】 시가 복합(현대시, 고전시가)

(가) 백석,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나) 김광균, 노신
(다) 윤선도, 어부사시사

13. [출제의도] 작품을 종합적으로 감상한다.

(가)의 화자는 몽상 속에서 아름다운 나타샤가 속삭이는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라는 말을 통해 세상과 거리를 두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다)의 화자는 춘사 8의 "인세(人世) 홍딘(紅塵)이 언메나 ᄀᆞ렷ᄂᆞ니", 동사 8의 "파랑셩(波浪聲)을 염티 마라 딘훤을 막ᄂᆞᆫ또다"에서 세상과 거리를 두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14. [출제의도] 작품을 세부적으로 감상한다.

화자는 '아름다운 나타샤'와 흰 당나귀를 타고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고 싶은' 소망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더러운 세상을 버리는 것'이다. '마가리'-오두막-는 두 사람만의 내밀한, 그리고 세상과 단절되고 고립된 공간이다. 눈이 푹푹 쌓이면 고립될 수 있고 깊은 산골은 사람이 드문 곳이라는 점에서 두 시어는 이러한 마가리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또 흰색은 그 속성상 순결함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더러운 세상을 '버리고' 싶어 하는 순결함에 대한 화자의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또 혼자 술을 마시며 몽상을 하는 화자의 모습에서 외로운 처지와 나타샤에 대한 그리움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나타샤'가 '나'를 사랑하는 이미지는 나와 있지 않기에 '나타샤'의 이미지는 반전되지 않는다.

15. [출제의도] 배경지식과 관련지어 작품을 감상한다.

작품의 제목과 <보기>로 미루어 ㈐는 자신을 <보기>의 어부로 자처하며 자연에 있는 어부의 삶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도원'은 도교의 이상향인 무릉도원을 뜻하며 화자가 있는 자연 공간을 드러내는 이미지로, <보기>의 '이상화된 자연'의 모습을 드러낸다. 또 각각 삿갓과 도롱이를 뜻하는 '청약립'과 '녹사의'는 어부의 전형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시어이다. '믈외예 조ᄒᆞᆫ 일'은 세상을 벗어난 깨끗한 일을 뜻하는 데, 이는 곧 어부의 삶을 가리킨다. 어부의 삶을 깨끗한 삶이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선비들이 어부의 삶을 흠모하고 바람직하게 여겼다는 <보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어부를 그림마다 그렸다는 것은 어부가 많은 그림에 주된 소재로 등장했다는 <보기>의 내용과 관련된다. 자연에 대한 선비들의 인식이 변화하는 양상은 ㈐와 <보기>에서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

16. [출제의도] 화자의 상황과 정서를 파악한다.

[A]에서 화자는 힘겨운 생활 속에서 삶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①에서도 화자는 '생활의 막다른 골목'에서 '수척한 얼굴'을 만나는데 이는 힘겨운 생활 속에서 지친 화자 자신의 모습이며, '지쳐 내려오는 곡예사'도 이러한 화자를 드러내는 이미지이다.

17. [출제의도] 유사한 시어를 비교하여 그 성격을 파악한다.

㉠은 화자가 눈오는 밤 혼자 소주를 마시고 나타샤와 산골로 가 살고 싶은 소망을 꿈꾸는 몽상과 환상의 시간이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와 같은 구절을 통해 화자가 몽상에 잠겨 자신의 소망을 꿈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은 생활에 지친 화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노신'을 떠올리며 굳세게 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시간이다.

18. [출제의도] 시구의 표현상 특징을 파악한다.

ⓐ에서는 '눈'과 '흰 당나귀'에서 흰색의 시각적 심상과 '응앙응앙' 하는 흰 당나귀의 울음의 청각적 심상이 어우러지고 있다. ⓑ에서 화자는 자기 자신을 '서른 먹은 사내'로 객관화하여 지칭하고 있다. ⓒ에서는 '등불이 나에게 속삭어린다'고 하여 등불을 사람처럼 말을 하는 인격화된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 ⓔ에서는 "~을 ~하지 마라, ~을 ~한다"의 구조의 시행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는 밥은 준비하고 반찬은 장만하지 말라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 밥과 반찬 자체가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지닌 것은 아니다.

【19 – 22】 사회

<출전> 윤영철, 뉴스의 이해

19. [출제의도] 글의 집필 의도를 파악한다.

이 글은 주로 뉴스 기사가 어떤 기준으로 선별되고 어떻게 보도되는지 그 제작 과정을 설명하고 수용자가 뉴스를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가를 밝히고 있다.

20.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A]-(1)은 '한 달째 변화 없는 노사 대치'라는 점에서 '변화'의 요소가 약한 기사이며, [A]-(4)는 동일한 성격의 기사인 [A]-(2)보다 '저명성'의 요소가 약하다. 따라서 이들의 기사가 제외된 이유를 '근접성'과 '갈등'으로 설명한 ③은 부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보도할 뉴스를 선별하고 뉴스의 강조점을 달리하는 것은 게이트키핑에 해당한다. ② [B]-(1)은 오늘 아침 발발한 사건으로 최근에 발생한 뉴스라는 점에서 '시의성'이 크다. ④ 황소가 주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은 '이상하고 기이한 사건'과 관련된 '신기성'의 요소가 있다. ⑤ [A]-(5)는 치열한 전투가 개시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B]-(1)은 정부군이 반격을 시작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 동일한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21. [출제의도] 진술에 내포된 전제를 파악한다.

'뉴스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말에는 뉴스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즉 '뉴스 기사의 공정성 판단은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오답풀이] ① 글쓴이는 여론의 지지를 받으면 공정한 보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의 시비를 방지하기 위해 여론을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③ 글쓴이는 사회 구성원들의 정서나 여론을 공정성 시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기고 있을 뿐이다

22. [출제의도] 기사에 대한 비판적인 이해를 평가한다.

<보기>의 기사는 댐을 건설하겠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기사이다. 따라서 <보기>를 '기자의 개인적 견해가 제시되어 반대를 위한 반대의 기사'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특정 취재원-정부 관계자의 말만 그대로 전하고 있다. ③ 댐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환경 단체의 의견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④ 댐 건설을 하는 것이 좋은지, 하지 않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판단은 댐 건설을 추진하는 정부와 반대하는 환경 단체의 입장 및 그들이 내세우는 사실적인 근거들을 비교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따라서 정치권을 상반된 입장의 두 주체로 삼아 단순히 찬성과 반대의 숫자로 댐 건설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말을 그대로 옮기는 것은 실제 쟁점 파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⑤ 댐 건설을 반대하는 환경 단체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적인 근거가 제시어 있지 않다.

【23 – 26】 현대소설

<출전> 윤흥길, 완장

23. [출제의도] 소설의 서술상 특징을 파악한다.

이 장면에서 서술자는 전지적 작가의 입장에서 인물의 내면을 서술하기도 하지만, 서술의 대부분을 인물의 말과 행동을 묘사하는 데 할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장면은 주로 보여주기(showing)의 기법으로 사건을 서술한다고 할 수 있다.

24. [출제의도] 소설의 소재 및 공간이 지닌 의미를 추리한다.

'물가'는 완장을 버린 '종술'과 '부월'이 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해 향하는 공간이다. 이런 점에서 '물가'는 두 인물의 미래의 새로운 삶과 관련 있는 공간이다.

25. [출제의도] 인물의 말하기 방식에 나타난 특징 파악한다.

'부월'은 종술에게 '벨 볼일 없는 하빠리들', '뿌시레기나 줏어 먹는 핫질 중에 핫질' 등의 말로 쏘아붙이면서 아직도 '완장'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종술'을 몰아붙이고 있다. 또 자신이 완장을 모른다는 '종술'의 말을 반박하면서, 둘이서 힘을 합쳐 진짜배기 완장을 차 보자는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26. [출제의도] 유사한 의미를 지닌 속담 찾아낸다.

㉡은 '종술'의 넋을 한때 송두리째 사로잡았던 완장을 저수지에 집어던진 후 '부월'이 느끼는 시원함을 비유한 표현이다. 이러한 상황을 드러낼 수 있는 속담은 ⑤인데, 이 속담은 '걱정거리가 없어져서 후련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27 – 30】 예술

<출전> 진중권, 오브제 미술의 미학적 고찰

27.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사실적 정보를 확인한다.

뒤샹의 '레디메이드'는 공장에서 이미 만들어진 물건을 그것의 용도와는 다른 엉뚱한 장소에 갖다 놓음으로써 예술화하는 오브제이다. 이것은 일상 사물과 예술은 다르다는 근대적 예술 제도를 공격하는 것이므로 근대적 예술의 시작이라 볼 수 없다.

28.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된 핵심 개념의 특징을 파악한다.

<보기>는 시장에서 구입한 천을 건물에 늘어뜨린 오브제 미술을 과연 예술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을 잘 보여주고 있다. '천'이라는 사물이 본래 용도나 기능에서 벗어나 건물 외벽에 실뜨기처럼 걸려 있는 데에서, 또 시청이라는 일상적 건물이 예술 작품화되면서 이러한 논란이 시작된 것이다. 이는 오브제에 의해 예술과 사물의 경계가 없어지면서 생겨난 논란으로 볼 수 있다.

29. [출제의도] 글의 세부적인 정보와 그 관계를 파악한다.

근대 예술은 일상과 예술의 구별 위에 존재했지만, 뒤샹의 '레디메이드'는 일상 속의 기성품을 미술관 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일상과 예술의 차별을 없애려는 것이다.

30.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한다.

ⓐ는 오브제의 개념이 단순한 사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제한적으로 확대된다는 맥락에서 쓰이고 있으므로 범위를 일정한 부분에 한정한다는 의미의 '국한(局限)되지'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31 – 34】 고전소설

<출전> 작자 미상, 운영전

31. [출제의도] 작품에 대해 개괄적으로 감상한다.

(가)에서 유영은 '김 진사'와 '운영'을 만나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 뿐, 두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

32. [출제의도] 내용 이해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이 글 마지막 단락에서, '유영'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담긴 '신책(神冊)'을 '장속에 감추어 두고 때때로 내어 보'다가 '후에 명산을 두루 찾아다니더니, 그 마친 바를 알 수 없다'고 한 것으로 보아, 그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3. [출제의도] 시 해석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B]의 '봄빛'은 '고운 꽃'의 이미지를 묘사하는 데에 활용된 시어로서, 해마다 새로워지는 봄빛과 같은 두 사람의 사랑을 드러내는 이미지이다.

34. [출제의도] 자료의 적용을 통해 작품 해석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적강 모티프의 설명으로 보아 '장차 벌어질 내용을 예고하는 기능'이란, 비범한 남녀의 만남, 천상에서의 재회 같은 사건들이 전개될 것임을 알게 하는 기능이다. '유영'이 죽은 '김 진사'와 '운영'을 만나는 것은 이러한 사건을 예고하고 있지 않다.

【35 – 37】 언어

<출전> 최전승 외, 음성과 음운

35. [출제의도] 세부적 정보를 사실적으로 이해한다.

셋째 문단에 따르면, 음운은 의미의 구별을 가능할 수 있도록 음성 중에서 '뽑아낸(추상화한)' 소리이며, 일종의 사회적 약속이다.

36. [출제의도] 정보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의 /ㅂ/는 무성음이고, ㉡의 /ㅂ/는 유성음이라는 데에서 둘의 음성적 자질이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국어 화자가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두 소리가 같은 음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로 볼 때, 둘의 음성은 다르나 국어 화자에게는 같은 음운으로 인식된다.

37.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상황 2]에서 남자는 [게:]를 발음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를 발음하여 음운을 잘못 실현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여자는 지시 대상을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며, 이는 여자가 [개:]와 [게:]의 음운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38 – 40】 기술

<출전> 김재웅, 그리스 신전의 돌기둥과 석굴암의 둥근 천장

38. [출제의도] 글의 서술 전략을 확인한다.

고대 그리스의 건축물과 로마의 건축물, 그리고 달구지와 자전거 등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면서 '구조물의 모양이 재료의 특성과 그 구조물에 가해지는 힘에 대한 대응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이 때 구체적인 예로 제시한 그리스 건축과 로마 건축, 달구지와 자전거의 차이점을 대비하는 방식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39.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구체적인 대상에 적용하여 이해한다.

자전거의 구조에서 '바퀴 테'는 바퀴살에 의해 허브에 연결되어 있으며 허브에서 바퀴살을 통해 전달되는 회전력을 받고 있다. 이때의 회전력은 바퀴살이 허브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인장력의 형태로 전달된다. 그러므로 '바퀴 테'에는 진행 방향으로 끌어당기는(밀어내는) 힘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허브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한다고 보아야 한다.

[오답풀이] ③ '허브'는 체인을 통해 페달에서 전달된 회전력을 바퀴살을 통해 바퀴 테에 전달함으로써 바퀴를 굴린다. ④ 바퀴살에는 프레임에 의해 전달된 인장력과 허브의 회전력이 바퀴 테를 돌리기 위해 회전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인장력이 함께 작용한다.

40. [출제의도] 세부 정보의 이해와 반응의 적절성 판단하기

둘째 문단을 통해 아치나 궁륭의 구조는 재료가 주로 압축력을 받기 때문에 기둥에 보를 얹는 구조보다는 하중을 견디는 힘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신라의 석굴암도 궁륭의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압축 하중에 견디는 힘이 강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도 줄어들 것이다.

【41 – 43】 과학

<출전> 사이언스 올제, 선천성 면역 반응

41. [출제의도] 제시된 정보를 개괄적으로 확인한다.

톨 유사 수용체는 대식 세포나 수지상 세포의 표면에 존재하기 때문에 B세포나 T세포의 표면에 존재한다는 내용은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42.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A]에는 선천성 면역 과정에 일어나는 반응의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왜냐 하면 엘리베이터를 탄 여자가 재채기를 하는데, 재채기를 유발한 병원체가 처음 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B세포가 항체를 만들어 병원체를 공격하여 제거하는 것은 적응성 면역 과정에 일어나는 반응이다.

43. [출제의도] 비유적 표현의 의미를 파악한다.

적응성 면역이 '독보적인 스타'였던 것에 비해 선천성 면역 반응은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적응성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데에 선천성 면역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홀대 받던 조연이 잘난 주연이 제 역할을 하게 돕는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홀대 받던 조연은 선천성 면역이, 잘난 주연은 적응성 면역이 된다.

【44 – 46】 희곡

<출전> 이강백, 「북어 대가리」

44.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과 의미를 파악한다.

'자앙'의 '편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운전수' 사이의 언쟁을 유발하지만 '운전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아니다.

45. [출제의도] 일정한 관점에서 작품을 감상한다.

'창고 안의 성실함이 창고 밖에서는 큰 잘못이 될 수도 있다'는 운전수의 말은 현대 사회가 거대한 조직이 되고, 그 조직의 각 부분들이 자신의 역할만 수행하는 상황에서, 부분에 불과한 개인의 성실함이 반드시 전체 사회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46. [출제의도] 인물의 성격을 파악한다.

<보기>에 나타난 다링의 인물형은 삶을 진지하게 살지 않고 대충대충 즐겁게 사는 인물로 표현되어 있다. 이런 성격의 인물인 '다링'은 수많은 상자 가운데 하나를 잘못 보내서 마음을 졸이는 '자앙'에 대해 조롱하는 투로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어울린다.

【47 – 50】 인문

<출전> 김영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알 수 있는가

47. [출제의도] 글을 읽고 주어진 글의 성격을 파악한다.

위 글은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의 구체적 내용을 소개하고, '방법적 회의'가 어떤 의미에서 가치가 있는지 그 현대적 의의를 밝히고 있는 글이다. 특히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가 철학을 하고자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

48.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여 적절하게 표현한다.

위 글에 의하면 데카르트는 '방법적 회의'를 통해 지식의 정당성을 입증하여 진정한 지식을 추구하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세 종류로 나누고 그 지식을 의심할 데까지 의심하여 진정한 지식의 성격을 밝히려 하였다. 이러한 데카르트의 노력인 '방법적 회의'에는 지식의 정당성을 입증하려는 과정(회의하는 과정)과 도달하려는 목적(진정한 지식의 추구)이 담겨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의심하라, 그리고 다시 시작하라!'에는 '방법적 회의'의 두 가지 성격이 다 들어 있다.

49. [출제의도] 세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며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은 데카르트가 '경험적 지식'으로 분류한 지식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밝히고 있는 문장이다. 데카르트에 의하면 '경험적 지식'은 경험 자체가 인식하는 인간을 속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재'보다는 우리에게 잘못 인식될 수 있는 '현상'으로 이뤄지기에 불완전하다.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는 현상이 실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경우이어야 한다. ④에서 '실제의 얼굴'은 '실재'에, '볼록거울에 비친 얼굴'은 '현상'에 적절히 대응시킬 수 있다.

50.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한다.

㉠은 '…을 …으로'나 '…을 …게', '…을 …고', '…고' 등의 형식으로 쓰여 '어떤 일에 대한 의견이나 느낌을 가지다.'는 의미를 지녔다. 이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①이다.